지역 첫 '기아 플래그십 스토어' 광주에 문 열다

서구 농성동에 공식 개관

기아가 생산하는 각종 차량 모델을 직접 확인하고 타볼 수 있는 관람부터 운행하는 시승, 여기에 구매와 정비, 브랜드 체험을 동시할 수 있는 공간이 광주에 문을 열었다.

기아는 지난 20일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식 개관했다.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는 강서, 인천, 부천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비수도권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다.

기아는 기존 서광주지점과 광주시청지점을 통합해 지상 2개층 대규모의 고객 경험 공간을 마련하고 더욱 확장된 미래 모빌리티 체험 요소와 차별화된 구매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포티지 30주년을 맞아 1세대 스포티지(앞)와 30주년 에디션 모델이 전시돼 있다.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 내부 공간 모습.

차량 관람부터 시승·구매·정비서비스·브랜드 체험 '원스톱'

광주 특화 13종 모델 맞춤 시승…스포티지 30주년 특별전

◇광주에 특화된 맞춤형 시승=25일 오전 11시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차량 구입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과 공간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이들이 눈에 띄었다. 스토어 1층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부터, 전시된 차량들의 외관부터 직접 차에 올라타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이들도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각종 차량들이다. 경차인 '모닝'부터 '니로'와 '스포티지', '쏘렌토', 'EV6', 'EV9' 등 다양한 모델이 전시돼 있다.

전시된 차량들은 살펴보는 것 외에도 직접 차에 올라타 운전석 시트의 느낌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를 세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쪽 세션에는 차량 성능 체험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지역 특화형 시승 프로그램을 갖춘 드라이브 온(Drive On) 공간이 나온다.

총 13종의 차량을 시승할 수 있는데, '투어 시승'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통과하는 코스로 후석 2열에 앉아 차량의 승차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차량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오토랜드 광주의 주력 생산 차종, 연혁 등 각종 세부 정보를 소개하며 색다른 시승 체험을 제공한다고 직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단거리부터 중장거리까지 다양한 시승 코스를 구성하고 동승 시승과 비동승 시승, 야간 시승, 패밀리 시승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승을 즐길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디지털화된 맞춤형 상담·예약시스템=기아 플래그십 스토어 홈페이지 내 상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대기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문 입구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예약 현황과 상담신청 등 각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수리나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도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다. 우선 브랜드 체험 콘텐츠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뉴 테크 시뮬레이터'(New-tech Simulator)가 마련돼 있다.

대형 LED 스크린으로 전시차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ADAS 주행 기술을 차종별로, 스토리를 선택해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차량 선택 사양을 직접 조합해 가상으로 제품을 구현하는 '3D 컨피규레이터'(Configurator)도 시선을 끌었다.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원하는 차량의 내·외장은 물론, 도어와 트렁크 개폐, 방향 지시 등 작동 모습을 실물 크기로 확인할 수 있다.

기아의 모든 외장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컬러 컬렉션'(Digital Color Collection)도 준비돼 있다. 태블릿 PC로 구현한 일종의 '디지털 컬러칩'을 활용해 여러 색상을 동시에 보고 비교할 수 있으며 원하는 색상이 적용된 차량 정보를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신차 출고 고객을 위해 신차 인도 공간인 '기아 픽업 라운지'도 마련, 차량 공개부터 품질, 검수 과정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고객에게 직접 신차를 인도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표 모델 '스포티지 30주년 특별전'=2층으로 올라가면 스포티지 30주년을 맞아 특별전이 열리는 공간이 나온다. 기아는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을 기념해 오토랜드 광주의 대표 생산 차량인 스포티지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1993년에 출시된 스포티지 1세대와 올해 선보인 스포티지 30주년 에디션 모델이 각 1대씩 전시돼 있다. 벽면에는 세대별(1세대~5세대) 스포티지 모델 변천사를 담은 디지털 전시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해당 차량은 다음 달 15일까지 매장에 전시된다고 한다.

김재민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 지점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야간 무인 매장으로 운영돼 자유롭게 전시장을 방문할 수 있다"며 "지역에서 처음 문을 연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기웅 기자 pboxer@

기아 레이 전기차 '더 기아 레이 EV' 출시

2735만원~2955만원

기아의 레이가 전기차 모델로 나왔다.

기아는 '더 기아 레이 EV'〈사진〉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레이 EV는 지난해 기아가 출시한 '더 뉴 기아 레이'의 전기차 모델이다.

14인치 알로이휠과 충전구가 중앙에 적용된 전면부 센터 가니쉬(중앙부 장식) 등 전용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외장 디자인을 갖췄다. 실내 10.25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시동 버튼이 통합된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를 적용해 미래지향적 이미지도 강화했다.

기아는 레이 EV에 35.2kWh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공기역학 성능을 높여주는 배터리 전방 언더커버를 적용해 복합 205㎞, 도심 233㎞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14인치 타이어 기준 5.1㎞/kWh의 복합전비를 달성했다.

레이 EV는 150kW급 급속 충전기로 40분 충전 시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7kW급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 6시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10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레이 EV의 구동모터는 최고출력 64.3kW(약 87ps)와 최대토크 147Nm를 발휘해 최고출력 76ps(약 55.9kW) 및 최대토크 9.7㎏f·m(약 95.1Nm)의 가속·주행성능을 확보했다.

정체 구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오토 홀드'를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고, 모든 좌석을 접는 '풀 플랫' 기능과 주행을 하지 않을 때 공조, 오디오 등 전기장치를 장시간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 모드'를 적용했다.

레이 EV의 트림별 가격은 4인승 승용 ▲라이트 2775만원 ▲에어 2955만원이다. 2인승 밴은 ▲라이트 2745만원 ▲에어 2795만원으로, 1인승 밴은 ▲라이트 2735만원 ▲에어 2780만원이다.

국고 보조금 512만원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약 650만원 상당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 EV는 경형 전기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면제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레이 EV는 도심형 엔트리 EV로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춰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차 고객에게 합리적인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승 이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레이 EV는 물론 전동화 모빌리티에 대한 기아의 진정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온라인 스페셜 'GLE 450 4매틱' 1시간 30분 만에 완판

메르세데스-벤츠가 첫 선보인 색상이 적용된 '온라인 스페셜' 9월 모델 'GLE 450 4매틱'이 출시 1시간 30분 만에 완판됐다.

2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따르면 벤크코리아 창립 20주년 온라인 스페셜 9월 모델로 출시한 '메르세데스-벤츠 GLE 450 4매틱 온라인 스페셜'이 지난 20일 출시 1시간 30분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앞서 벤츠는 4세대 부분변경 모델 더 뉴 GLE의 온라인 한정판 모델을 선보였다. 부분변경을 통해 GLE에서 새롭게 선보인 내·외장 색상과 외장 디자인 옵션, 실용적인 편의사양을 추가했다.

이번 온라인 스페셜 모델은 부분변경을 통해 처음 소개된 2가지 색상이 적용됐다.

'마누팍투어 알파인 그레이 솔리드' 색상 모델은 카탈라나 베이지 및 검은색의 두 색상이 적용된 모델로, 클래식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살렸다. 20대 한정 수량으로 판매됐다.

또 함께 선보인 '소달라이트 블루' 색상 모델은 차분하면서 세련미를 강조했다. 마키아토 베이지와 검은색 색상의 인테리어로 깔끔하면서 넓은 공간감을 갖췄다. 19대 한정 수량으로 출시됐다.

벤츠코리아는 올해 한국 진출 20주년을 맞아 매월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인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스페셜 모델을 한정수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

광주은행 베트남 증권시장 진출 본격화

JBSV,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FINAVI' 출시…입문자도 손쉽게 이용 가능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베트남 증권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광주은행은 25일 베트남 내 자회사인 'JB Securities Vietnam'(JBSV)이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FINAVI'를 지난 2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JBSV는 광주은행의 첫 해외 자회사로, 베트남 하노이에 거점을 둔 증권사다.

이번에 출시된 FINAVI는 광주은행의 빠르고 안정화된 IT기술력을 기반으로 현지시장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차별화된 기능을 가미했다.

주식거래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이다.

JBSV는 "FINAVI 출범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본격적인 증권거래 서비스를 시작해, 현지화에 성공한 종합증권사로 더욱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사업영역 다각화의 일환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쏟아 왔으며, 지난 2020년 4월 베트남 소재 증권사인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시큐리티(MSGS)'를 인수, JBSV로 사명을 변경하고 광주은행 최초 해외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광주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베트남 증권사 JBSV의 직원들이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FINAVI'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의 안정화된 IT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푸드 수출 증가

농식품부, 전년대비 0.4%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이달 둘째 주까지 6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 중에서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3.5% 늘었고, 김밥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16.2%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라면은 한류 콘텐츠에 힘입어 매운 라면, 볶음면 등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며 수출 효자 품목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딸기와 배 수출액이 각각 26.9%, 18.1% 증가했고 김치 수출액이 9.9%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개선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제78회 이사회 개최

김동찬 전 상생일자리재단 대표 상임부회장 선임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호원 회장)는 지난 24일 '제78회 이사회'를 열고 김동찬 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광주경총은 이날 김동찬 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김동찬 신임 상임부회장은 초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제8대 광주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설립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 부회장에는 강용선 ㈜대웅에스앤티 회장이 선임됐고, 이사에는 박승현 영진종합건설㈜ 회장이 선임됐다.

또 지난 3월 12일부터 이날까지 총 222개 회원사가 광주경총 신입회원으로 가입 승인됐다. 양진석 회장이 취임 당시 세웠던 '올해 500개사 회원가입' 목표가 7개월 만에 568개사로 초과 달성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올해 정부 및 지자체 수임 사업이 59억원으로 증가되면서 광산구·북구 등 거점 지역에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양진석 회장은 "임원들의 도움 덕분에 광주경총 회원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 정책 및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하겠다. 다양한 회원서비스를 확대해 회원사 경영 애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